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내일 개최 합의

이인영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합의

“많은 이견 있었지만 국회 책무 이행 맞다 판단”

여야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청문회를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

하기로 한데는 청문회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야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걷어차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껴왔다.

여야가 6일을 청문회 일정으로 선택한데는 사실상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6일이 (법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마지막 날이

고 내일 하루는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靑 “여야 ‘조국 6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존중”

“조국 후보자, 직접 소명하고 오해 씻을 기회”

청와대는 4일 여야 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항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더구나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국민이 다 본 건 아니지 않았다. 6일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및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 후보자 딸의 총장상 수상에 대한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오해를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51.5% vs 찬성 46.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여론은 51.5%로 찬성 여론(46.1%)보다 5.4%포인트(p) 앞섰다.

다만 지난달 30일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차 조사에선 반대 여론이 5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감소했지만, 찬성은 4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증가하면서, 찬반 격차가 한 자릿수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반대 응답은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 찬성 응답은 3.8%p 증가한 46.1%로 집계

됐다. ‘모름/무응답’은 2.4%였다.

검찰의 조 후보자 측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이틀날인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반대가 54.5%, 찬성이 39.2%로 반대가 15.3%p 높았다가, 유시민 노무재단 이사장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2차 조사에서는 반대가 54.3%(-0.2%p), 찬성이 42.3%(+3.1%p)로 찬반 격차가 12.0%p로 감소했다. 조국 후보자가 직접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다음 날인 지난 3일 3차 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4.4%p) 내인 5.4%p 좁혀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

(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남성, 보수층과 중도층, 한 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호남, 30대,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경기·인천, 여성, 40대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찬성 응답은 2차 조사보다 충청권과 PK, TK, 서울,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50대 등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남성과 여성,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 40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감소했다.

뉴스1

李총리 “태풍 ‘링링’으로 추석 농사 헛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해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가옥이나 농업·건설 현장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기상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1년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낙과·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강풍과 풍랑에 의한 수산물 증·양식 시설 피해 대비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로부터 기상상황과 태풍 대비 대처 계획 등을 보고 받고 2012년 유사한 태풍 진로인 볼라벤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끼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큰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344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오 동 민 (760202-1641420)
최 후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02 502동 511호(부영5차아파트)

위 망 오동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 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9월 5일

공 고 인 : 정경애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02 503동 511호(부영5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30일
공고기간 : 2019. 9. 5 ~ 2019. 11. 5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 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문제고급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라남도노사노동조합정책결정위원회